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영광군, 선박매매알선업 관리체계 ‘엉망’

법성면 인근 불법 훼손한 임야에 어선 수십 척 수년간 방치  
 군, 훼손 임야 원상복구 명령...선박은 관련법 없어 단속 회피  
 인근 대단위 행사풍력단지 조성 계획에 ‘보상 노렸다’ 의혹도

영광군의 선박매매알선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군 법성면에 불법훼손된 임야에서 수년 동안 불법 선박매매알선을 해 왔지만 적지와 수리, 개조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영광군은 임야에 대해 불법훼손한 이유를 들어 조사한 결과 “영광군 법성면 임야리 산 47-5번지의 5필지 6.174㎡가 지난 2009년부터 훼손되어 있었으며, 최근 수년전부터 선박매매알선업자가 35여척의 선박을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 정지토목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매매업자 A씨는 지난달 30일까지 선박을 옮기고 부지정리에 들어갔지만 선박을 적치하고 수리 및 개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광군 법성면 임야리 불법훼손된 임야에 허가어선은 35척 중 7척이며, 매매알선업자 A씨가 4척을, 3척은 인근 어민소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무조업 어선 1척이 적발돼 행정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선박들을 이용해 보상을 받으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운송과 관련해 2016년 선박을 소유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할 때 매매알선업을 하는 A씨가 당시에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박도 해상풍력으로 보상을 노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송이도와 안마도 인근에 대단위 지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몇 개의 회사에서 허가를 진행중에 있다. 선박매매알선업은 목포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목포서해어업관리단 담당자는 “매매알선 사업소(사무실등)와 사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선박을 정박하고 적지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 같다”고 밝히고 있다.

영광군은 “임야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미이행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해 사전처리 및 사법할 방침”이라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민들에 의하면 “훼손된 임야에서 선박을 적치하고 산소통과 절단기등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선박을 절단하고 해체하는 듯한 일들을 자주 봤다”며 “허가가 없이 무허가로 적



치와 수리 및 개조를 했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매매알선업자 A씨는 “2019년 홍수로 인해 범성포항에 있던 선박이 바다로 떠내려가 육상으로 올려놓고 매매만 했을뿐 수리와 개조는 한 사실이 없다”며 “산소통과 절단기 등은 고물상을 하시분에게 선박의 철선을 절단해 달라고 해 있었던 것으로 수리나

개조는 하지 않았다”고 수리와 개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한 보상과 관련해 A씨는 “지난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보상은 받았다”며 “해상풍력 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배를 적치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농악 외길 70년’ 김용현 상쇠, 구례군민의 상 수상

일평생을 농악인으로 살아온 90대의 상쇠가 올해의 구례군민의 상을 받았다.



구례군은 2021년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구례전수농악 상쇠 김용현(93)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상쇠는 1940년대에 구례전수농악을 전수받은 후 좌도농악 12체 가락을 처음 밝혀 구례전수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구례전수농악보존회를 처음 설립했으며 93세의 고령에도 꾸준히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는 등 구례전수농악의 전승보존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구례전수농악 12체 가락복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여해  
 90대 고령에도 후진 양성 힘써

김 상쇠는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 출신으로 20세에 마을농악 차배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농악명인 서학현 선생과 그 뒤를 이은 상쇠 이성욱 선생으로부터 구례전수농악을 전수받았다.

27세에 잔수마을 농악 위원계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마을굿을 본격적으로 전승했다.

40세 무렵부터 상쇠 이성욱과 함께 순천, 여수, 광주 등으로 걸곡을 다녔으며 순천중앙극장, 시민극장, 순천극장 등의 무대에서 굿을 치고 큰 호응도 얻었다.

그는 2006년 구례전수농악 보존회 전승을 위해 구례읍 신촌마을 주민 40여 명을 모아 구례전수농악보존회를 설립했다. 2005년 제32회 남도문화제 개인연기상을 수상하며 구례전수농악을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2007년 9월 보존회 회원들과 57년 만에 ‘구례전수농악 도독잼이굿’을 복원해 재현 공연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위한 광주시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완료

일반도로 50km/h·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제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 감소효과 기대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 도로(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총연장 1,466km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필요시 6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교통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설계용역을 거쳐 하향공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km/h를 지정함으로써 제한속

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과 동시에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완료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 141km에 대해서는 60km/h로 적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 시민 & 동아리 모집

이렇게 신청하세요

**개인 (주민)**

**W**

-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 2 광산구 커뮤니티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